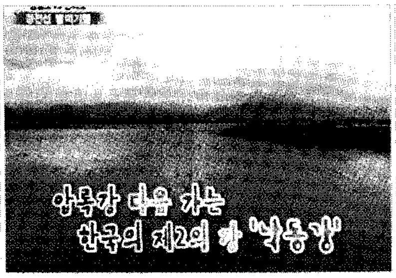
#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
# 경전선 타고 떠나는 별미 맛기행!

▶MBC 「공감특별한세상 216회」 2009년 6월 26일(토)



멋진 기차 여행에 소문난 별미까지 맛보니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!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~ 경전선 타고 별미 맛기행을 떠나봅니다.

낭만과 추억이 서린 기차여행!

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. 맛여행도 되고 기차여행도 되고~! 훨훨 가볍게 날아갈 것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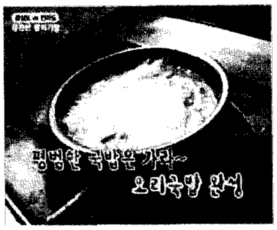
경상남도 밀양에 위치한 삼랑진역. 이곳이 별미 맛기행을 떠나는 출발지점. 경전선은 삼랑진역에서 송정리역까지 간다. 낙동강역에서 내리면 멋진 낙동강역 구경하고 꼭 먹어야 할 별미가 있다.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별미중의 별미는?

이제는 겨울철새의 대표주자 토종오리가 아니다. 1년 365일 맛볼 수 있는 양식 토종오리다.

**[배인순 사장]** 낙동강에 오셨으면, 낙동강의 명물! 오리국밥 드시고 가세요.

오리훈제에 오리바베큐는 들어봤어도 오리국밥은 처음이다. 일단계로 오리뼈 팍팍 넣고 팔팔 끓여야 오리국밥육수가 완성.

**[배인순 사장]** 오리고기는 12시간 이상 고아야 제 맛이 납니다.



갖은 양념을 넣은 소스를 오리고기에 입혀준 뒤 육수에 넣고 푹 끓여주면 낙동강의 진미 깔끔한 맛이 일품인 오리국밥 완성!

**[손님1]** 국물이 개운하고 오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고 정말 맛있어요.

하지만 역시 오리훈제가 빠지면 아쉽다. 오리국밥의 환상의 짝궁 오리훈제고기까지 맛봐야 낙동강 청둥오리의 깊은 맛을 다봤다고 할 수 있다.

**[손님들]** 경전선 타고 낙동강 오리국밥 드시러 오세요~